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전 미 리

중앙대 학생생활상담센터

김 봉 환[†]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을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진로지지, 대학생의 성실성·개방성 성격요인과 결정효능감, 결정결과기대를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탐색과정에서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9개 4년제 대학에서 대학생 448명(남: 203명, 여: 245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상관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부모 진로지지, 성실성과 개방성, 결정효능감, 결정결과기대는 모두 준거변인인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진로지지는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를 통하여, 성실성은 결정효능감을 통하여 목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개방성은 결정효능감을 통하여 목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부모 진로지지, 성격 및 효능감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 탐색 자기관리를 촉진하는 방안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진로 자기관리, 부모 진로지지, 성격요인, 결정효능감, 목표

* 본 연구는 전미리(2017)의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Tel : 02-710-9387, E-mail : bongwhan@sm.ac.kr

오늘날 일의 세계를 둘러싸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 및 정보화, 저성장고용 안정성의 저하, 글로벌 경쟁 등으로 요약되며(Gati, 2013; Lent & Brown, 2013), 이로 인하여 일자리의 수명은 짧아지고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단기적인 고용계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차례의 진로탐색과 결정, 적응을 반복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한 조직 내에서 정년까지 일하며 조직이 개인의 진로를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워지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송보라, 이지원, 최혜승, 허준경, 이기학, 2015; Lent & Brown, 2013; Lent, Ezofor, Morrison, Penn, & Ireland, 2016; Savickas, 2011).

불투명한 미래와 다양한 정보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혹은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진로결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성격과 정서, 인지 등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진로결정에서 합리성이라는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던 기존 연구 경향으로부터 직관, 우연, 성격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연구경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Brown & Hirschi, 2013; Gati, 2013), 아직은 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진로결정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 4단계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Harren, 1979). 즉,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여 탐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후, 자기와 환경에 대하여 탐색하고, 특정 진로 대안에 몰입하여, 이행을 준비하는 4

단계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진로탐색을 포함한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면 진로 자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진로 자기관리모형(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Lent & Brown, 2013)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이들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기존 모형에 포함된 환경 맥락적 요인과 인지·행동적 요인 뿐 아니라 진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성격요인을 추가하여, 개인의 진로 자기관리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Super의 전생애 진로발달의 틀에 근거하여 개인의 진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성격을 이해하는 이들의 관점은 진로관리와 성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진로 자기관리모형에서 새롭게 추가된 성격 5요인은 성격의 공통성과 개인차를 기술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 전 생애에 걸친 진로 자기관리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성격 5요인 중 원만성을 제외한 성실성, 정서안정성, 개방성, 외향성이 주로 진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보영 외, 2016; 전미리, 김봉환, 2015a; Brown & Hirschi, 2013; Rossier, 2015). 진로 자기관리모형에서는 이 중 성실성과 개방성을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가정한다(Lent & Brown, 2013). 성실성은 성취 지향적이며 신뢰롭고 질서정연한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충동 통제 및 과제 지향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개방성은 삶의 폭, 깊이, 창조성, 복잡성과 관련되어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열린 자세를 의미한다. 따

라서 이 두 성격 요인은 진로 탐색과정에서 목표를 세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외향성은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이 있으므로 성실성과 더불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정서안정성은 결정여부와 수준에, 긍정적 정서성을 포함하고 있는 외향성은 진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외향성과 정서안정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Lent & Brown, 2013).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목표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 혹은 의도를 뜻한다.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통해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끌어내며 외적인 강화가 없을 때조차도 오랜 동안 행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목표는 중요한 인지적 기제이다(Lent, Brown, & Hackett, 1994).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주로 효능감에 국한되어 이론 모형 검증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김영혜, 안현의, 2012; Lent & Brown, 2013), 목표에 대한 결과기대의 영향력을 포함한 소수의 연구 역시 그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양난미, 2006; 이정애, 2009). 환경과 행동의 상호작용의 매개로써 효능감, 결과기대와 목표라는 세분화된 인지 기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강점으로, 상담 및 교육에서 유용한 개입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선택모형(Lent et al., 1994)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흥미 및 선택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기관리모형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선택모형의 효능감은 특정영역과 관련된 내용효능감을 의미한

다면, 자기관리모형에서는 진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효능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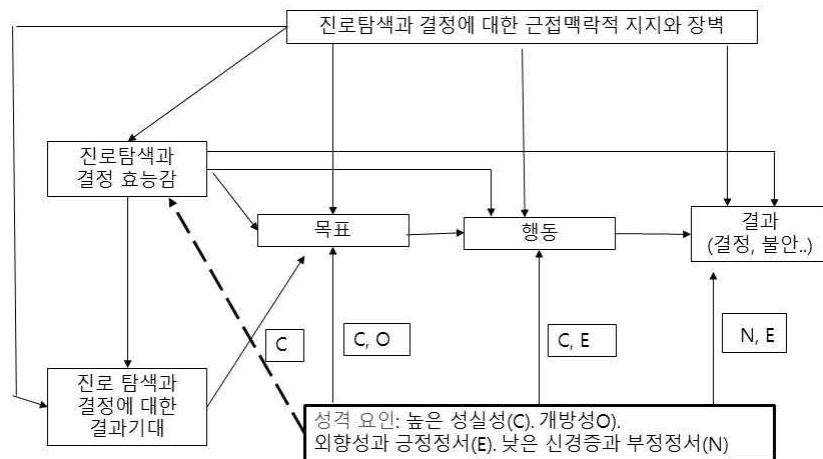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은 진로대안의 확장과 축소가 엇갈리며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탐색에서 정보는 현재의 자기 개념체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처리된다(Harren, 1979). 즉, 어떠한 정보에 주목하여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의미 지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에 효능감과 결과기대와 같은 자기개념 체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Lent와 Brown(2013)은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이 진로탐색과정에서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으나, 미국 대학생들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실성과 목표의 관계를 검증한 진로 자기관리 모형의 선행 연구들에서 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추가되는 것으로 모형이 수정·검증되었다(Lent et al., 2016; Lim, Lent, & Penn, 2016). 그런데, 이들의 경험적 연구 결과(Lent et al., 2016; Lim et al., 2016)는 원래의 가정(Lent & Brown, 2013)과는 다소 다르게 성실성이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목표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실한 사람일수록 효능감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에 효능감 향상을 통해 진로탐색과정에서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성이 낮은 경우, 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서 진로탐색에 대한 목표설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격 요인이 효능감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목표 및 목표추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는 이러한 경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또 다른 모형인 만족모형(Lent & Brown, 2008), 성격 5요인 이론체계(McCrae & Costa, 2008)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성격요인과 진로탐색과정에서의 목표 설정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성격요인과 진로행동의 관계 혹은 성격요인과 학업에서의 성취목표 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하여 성실성, 개방성과 목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성격요인이 진로결정 효능감을 통하여 대학생(전미리, 김봉환, 2015a)과 구직자(이상희, 최준희, 신상수, 2011)의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효능감을 매개로 학업 성취목표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 영향을 주는 유일한 성격요인으로 나타나 목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으며(서미옥, 2010), 직업정보탐색 및 자기탐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Reed, Brunch, & Hasse, 2004). 진로탐색과정에서 목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는 또 다른 성격요인인 개방성은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목표(서미옥, 2010), 진로 성취목표(송지은, 이정운, 2014),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실, 2014; Bullock-Yowell,

Andrews, & Buzetta, 2011; Jin, Watkins, & Yuen,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 요인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과정에서 목표설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에, Lent 등(2016)의 수정된 진로 자기관리모형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은 십여 년이 넘게 익숙한 학생이라는 생애역할로부터 직업인으로 첫 전환을 앞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로탐색과 결정이라는 발달적 과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관심이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다. 또한 집단주의적이며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유민봉, 심형인, 2013) 속에서, 자녀의 진로선택과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선혜연, 김계현, 2007). 부모의 지지가 사회적 지지에 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이미진, 2012), 지지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효과크기 역시 지지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지지변인에 대한 그간의



주. 점선은 Lent 등(2016)에 의해 수정, 추가되었음.

그림 1.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 모형(Lent & Brown, 2013; Lent et al, 2016)

국내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성하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지지의 지지원을 부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와 다르게 대학생의 진로 행동, 진로몰입 등에 대하여 효능감, 정체감, 자기성장 주도성 등을 매개로 하여 한 간접적인 영향이 보고되는 특징이 있었다(구본용, 유제민, 2010; 김가희, 2015; 김지근, 이기학, 2011; 민지애, 유금란, 2015; 이현주, 2010;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시기의 발달 과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삶의 만족에 대한 효과크기를 확인한 연구에서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과제는 자율성으로 보고되었다(송보라 외, 2015). 또한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갈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양 세대 모두 자녀의 생활 및 진로 등의 자기관리, 자녀의 분리 및 의존과 관련된 갈등 및 부모의 강요와 간섭이 갈등의 주요 영역으로 나타났다(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은 이 시기 부모-자녀관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변화 가능한 '자기(self)'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Lent & Fouad, 2011), 부모의 지지가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를 매개로 목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변인으로 지지, 심리적 독립과 같은 일반적인 변인은 진로상담 실체에 주는 시사점에 한계가 있으므로(선혜연, 2008),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부모'의 '진로'지지를 맥락적 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대학생 자녀의 진로탐색과정에서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목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경쟁모형으로 선정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주로 검증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자기관리모형과 동일하게 진로탐색에 부모 진로지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 Lent et al., 2016)에 따라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과 지지,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와 목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생잠재변수는 부모 진로지지,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이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와 자신의 성실성 및 개방성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결정효능감)이 커지며,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이 진로결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결정결과기대) 역시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높은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는 진로탐색활동에 참여할 의도, 혹은 계획(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매개변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진로지지는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를 매개로 하여 목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성실성·개방성 성격요인은 결정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결정효능감은 결정결과기대를 매개로 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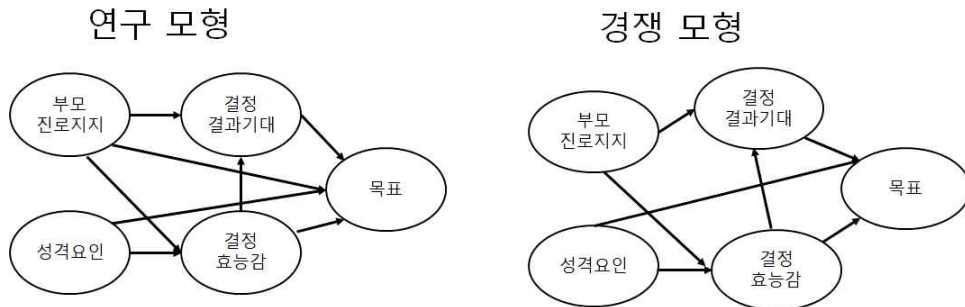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총 9개교의 13개 강좌에서 수집된 477명의 자료 가운데 44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자는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남학생 203명(45.3%), 여학생 245명(54.7%)이며, 평균 연령은 21.2세($SD=2.2$)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39명(31%), 2학년 117명(26.1%), 3학년 112명(25.0%), 4학년 80명(17.9%), 전공별로는 인문사회상경계열이 275명(61.4%), 이공의학계열 93명(20.8%), 예체능 계열 및 기타 80명(17.9%)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절차

SPSS와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Anders와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절차에 따랐다. 먼저 1단계로 측정모형을 검토하여 개념 측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χ^2 , RMSEA, TLI, CFI, SRMR)를 평가하

였다. 측정모형을 검토한 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여 보다 더 설명력이 있으며 간명한 모형을 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의 방법에 따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매개변인의 정상분포성 가정을 우회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다만 중다매개변인의 경우 AMOS로는 개별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부모의 진로지지가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라는 두 개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가정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모형 적합도나 모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서 개별적 간접효과의 모수치를 얻을 수 있는 팬텀변수를 이용하였다(Cheung, 2007; Macho & Ledermann, 2011).

측정 도구

성격요인(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Goldberg(1999)가 제작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성격 5요인의 척도를 변안한 것으로 (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정서안정성, 원만성의 각 성격요인별로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요인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예: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과 개방성(예: 상상력이 풍부하다)의 2개 요인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 α 는 .70이상으로 양호한 편으로(이영란, 2006),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 .79, 개방성 .77로 나타났다.

부모 진로지지(Career-Related Parent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Questionnaire)

이상희(2009)가 개발한 대학생의 부모 진로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보적 지지(예: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 주신다), 대화적 지지(예: 내 진로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다), 정서적 지지(예: 나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신다), 경제적 지지(예: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 주신다), 경험적 지지(예: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5개 요인 각 4문항씩 총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 α 는 원 척도에서 전체 .89, 본 연구에서 .90이며 하위 요인들은 원 척도 .78 ~ .83, 본 연구 .78 ~ .85로 나타났다.

결정효능감(Brief Decisional Self-efficacy Factor)

Lent 등(2016)이 개발한 진로탐색 및 결정효

능감 척도(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 Self Efficacy Scale: CEDSE)의 하위요인인 결정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를 위하여 타당화하였다. 원 척도는 진로 및 자기 탐색을 통한 결정효능감(예: 나의 기량, 가치 흥미를 직업과 연결할 수 있다) 8문항과 진로장벽과 낙담에 대한 대처효능감(예: 처음 선택한 진로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에 대처할 수 있다) 4문항의 총 12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효능감 7문항과 대처효능감 3문항의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Cronbach α 는 원 척도에서 .98, .86,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87, .67, 본 연구에서 .90, .64로, 국내에서 대처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처효능감 척도의 진로결정 관련 변인과의 상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대학생 대상 타당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r=.30 \sim .39$). Lent 등(2016)은 이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결정에서 대처효능감을 실제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효능감 소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랐다. 결정효능감 소척도는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정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정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behaviors)

Betz와 Vuyten(1997)이 개발한 진로결정결과 기대(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tions) 척도의 두 하위척도 중 하나로 진로탐색이 향후 진로결정에 유용할 것이라는 신념을 측정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 다른 하위척도인 학업결과기대척도는 학업수행과 진로와의 관련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진로탐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원저자인 Betz와 Voyten(1997) 역시 두 하위 척도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제시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총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양난미(2006)가 번안, 타당화한 것을 전미리와 김봉환(2015b)이 원 척도의 내용에 보다 충실하게 한 문항을 수정한(내가 진로관련정보수집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결과기대를 반영한다. Cronbach α 는 원 척도와 본 연구에서 .79로 나타났다.

목표(Goals, Exploratory Intentions)

Betz와 Voyten(1997)이 개발한 목표를 측정하는 척도로 양난미(2006)가 번안, 타당화하였다.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예: 나는 진로에 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 할 계획이 있다)를 측정하는 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의 의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원 척도에서 .73, 본 연구에서 .79로 나타났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먼저 본 연구의 자료가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검토하였다. 결측치는 SPSS에서 EM으로 대체하였다. 단변량의 이

상치는 Z 값 $> \pm 3$, 다변량의 이상치는 AMOS에서 마할라노비스의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구한 값의 $p < .001$ 을 기준으로 검토하여(Kline, 2010), 각각 4부와 14부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성실성, 개방성, 결정효능감은 하위 요인이 없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제작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사용하면 지표변수의 정규성 및 연속성 가정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으며, 모형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모든 문항꾸러미가 거의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되, 하나의 문항꾸러미에 3~4개의 문항을 할당하였다. 꾸러미에 포함된 문항 수가 다를 경우 되도록 평균점수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므로 이에 따랐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다변량 비정규성은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의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경험적 기준(Curran, West, & Finch, 1996)인 왜도 $< \pm 3$, 첨도 $< \pm 8$ 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5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 간 상관(N=448)

PS	ps1	ps2	ps3	ps4	ps5	C	c1	c2	c3	O	o1	o2	o3	DE	de1	de2	OE	G	
PS	1																		
ps1	.80***	1																	
ps2	.83***	.60***	1																
ps3	.69***	.55***	.59***	1															
ps4	.61***	.35***	.35***	.31***	1														
ps5	.80***	.65***	.57***	.59***	.31***	1													
C	.24***	.15***	.21***	.22***	.13**	.20***	1												
c1	.23***	.15**	.19***	.23***	.11*	.18***	.88***	1											
c2	.20***	.09*	.17***	.17***	.13**	.18***	.85***	.64***	1										
c3	.21***	.15**	.19***	.17***	.11**	.18***	.85***	.62***	.18***	1									
O	.13**	.10*	.11***	.05	.01	.20***	.23***	.24***	.16**	.18***	1								
o1	.09	.08	.08	.01	.00	.16**	.21***	.19***	.15**	.17***	.84***	1							
o2	.18***	.18***	.15**	.07	.05	.21***	.21***	.27***	.09	.18***	.84***	.58***	1						
o3	.05	.00	.06	.04	-.02	.12*	.14**	.11*	.16**	.09	.79***	.55***	.46***	1					
DE	.32***	.21***	.27***	.32***	.16**	.23***	.36***	.30***	.32***	.33***	.31***	.26***	.25***	.27***	1				
de1	.31***	.20***	.27***	.32***	.15**	.22***	.36***	.31***	.32***	.32***	.27***	.26***	.27***	.97***	1				
de2	.30***	.19***	.26***	.30***	.15**	.22***	.33***	.26***	.30***	.32***	.27***	.22***	.25***	.24***	.96***	.86***	1		
OE	.20***	.08	.21***	.19***	.20***	.10*	.16***	.18***	.12*	.14*	.15**	.07	.16**	.09	.21***	.22***	.18***	1	
G	.24***	.09	.29***	.22***	.17***	.15**	.25***	.27***	.20***	.21***	.30***	.22***	.30***	.23***	.36***	.34***	.36***	.40***	1
M	3.54	3.01	3.73	3.77	4.06	3.13	3.35	3.48	3.31	3.23	3.34	3.12	3.42	3.45	3.70	3.70	3.70	4.05	3.87
SD	.62	.86	.79	.78	.78	.89	.55	.60	.64	.70	.53	.66	.61	.68	.66	.66	.71	.58	.63
해도	-.15	-.10	-.41	-.52	-.93	-.11	.08	.06	.01	-.07	.00	.22	.05	-.16	-.18	-.17	-.26	-.02	-.17
평균	-.02	-.32	-.12	.19	.64	-.43	-.27	-.31	-.35	.10	.25	-.21	-.10	-.11	-.11	-.09	-.44	-.29	-.29

주. *** $p < .001$, ** $p < .01$, * $p < .05$

주. PS 부모 진로지도, ps1 정보외지도, ps2 대화외지도, ps3 정서외지도, ps4 경제외지도, ps5 경험외지도, C 정실성, c1 정실성1, c2 정실성2, c3 정실성3, O 개방성, o1 개방성1, o2 개방성2, o3 개방성3, DE 결정효능감, de1 결정효능감1, de2 결정효능감2, OE 결정결과기대, G 목표, M 평균, SD 표준편차

측정 모형 검증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와 Gerbing(1988)의 방식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가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결정결과기대와 목표 척도는 각각 단일요인으로 총 4문항과 5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므로, Kelloway(1998)의 방법에 따라 요인적재량을 신뢰도 계수와 표준편차의 곱과 같도록 고정하였다. 측정오차는 $\{(1-\alpha) \times \text{관측변수의 분산}\}$ 으로 고정시켰다(배병렬, 2011, 364; Kelloway, 1998).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7, N=448)=228.79, p<.001; CFI=.943; TLI=.922; SRMR=.044; RMSEA=.066(90\%CI=.057-.076)$).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조 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자료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내포모형에 해당하므로 χ^2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가능하다. 즉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값과 자유도의 차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계적인 유의도를 확인, 더 설명력이 있으며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배병렬, 2014; Bentler & Bonett, 1980). 증분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p<.05$), 추가 설정된 경로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를 많이 설정한 모형을 선택한다. 반면, 증분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경로를 더 적게 설정하고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χ^2 값은 231.90과 234.42로 $p<.001$ 수준에서 기각되었고 적합도 지수 역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따라서 χ^2 차이검증을 이용하는 경우 $\Delta df=1$ 일 때, $\chi^2_{crit}>3.84$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간의 설명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Delta\chi^2=2.42, p>.05$)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즉, 부모 진로지지의 목표에 대한 직접경로가 제거된 경쟁모형이 최종구조모형으로 선정되어 대학생들에게 부모의 진로지지는 사회적 지지와 달리 목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동일한 결과이다. 예측변인들은 목표 변량의 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된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표 2. 구조모형의 적합도(N=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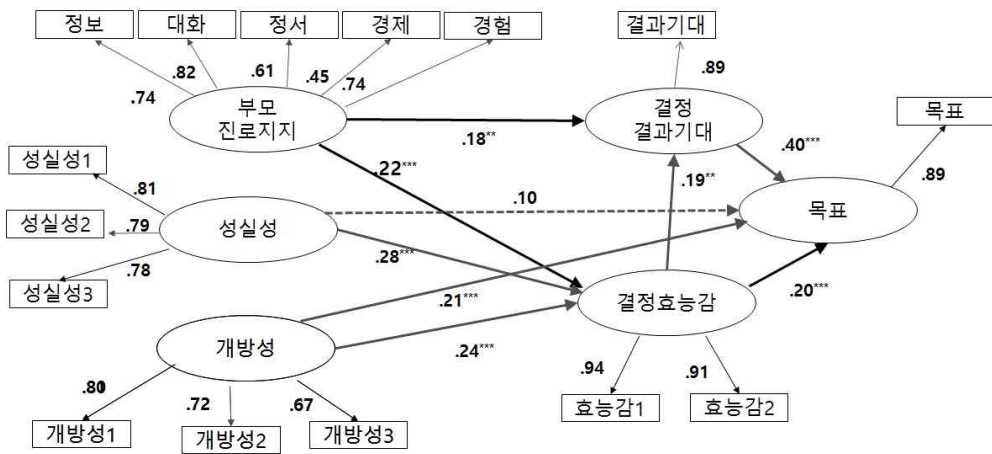
	유형	χ^2	df	TLI	CFI	RMSEA	SRMR
모형 (성실성-개방성)	연구모형	231.90***	79	.923	.942	.066	.045
	경쟁모형	234.42***	80	.924	.942	.066	.046

주. *** $p<.001$.

3과 같다. 성실성의 목표에 대한 직접 경로($\beta = .10, t = 1.84, p > .05$)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실성의 결정효능감에 대한 경로계수($\beta = .28, t = 5.27, p < .001$), 개방성의 결정효능감($\beta = .24, t = 4.5, p < .001$), 목표($\beta = .21, t = 3.62, p < .001$)에 대한 경로계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 진로지지의 결정효능감($\beta = .22, t = 4.38, p < .001$), 결정결과기대($\beta = .17, t = 2.90, p < .01$)에 대한 경로계수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결정효능감의 결정결과기대에 대한 경로계수($\beta = .19, t = 3.25, p < .01$)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목표에 대한 경로계수는 결정결과기대($\beta = .40$), 개방성($\beta = .21$), 결정효능감($\beta = .20$) 순으로 높았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의 매개효과가 시사되었으므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의 방법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팬텀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개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결정결과기대는 결정효능감과 목표를 매개하는 유의한 매개변인이었으며, 결정효능감은 부모 진로지지, 성실성 및 개방성과 목표 간의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진로지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주 1. *** $p < .001$, ** $p < .01$
 주 2.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B	하한	상한
부모지지 → 결정효능감 → 목표	.080 ^{***}	.028	.171
부모지지 → 결정결과기대 → 목표	.125 ^{**}	.032	.258
부모지지 → 결정효능감 → 결정결과기대 → 목표	.030 ^{**}	.011	.064
성실성 → 결정효능감 → 목표	.132 ^{***}	.052	.250
성실성 → 결정효능감 → 결정결과기대 → 목표	.050 ^{**}	.016	.109
개방성 → 결정효능감 → 목표	.121 ^{***}	.051	.236
개방성 → 결정효능감 → 결정결과기대 → 목표	.046 ^{**}	.015	.091
결정효능감 → 결정결과기대 → 목표	.134 ^{**}	.048	.247

주. *** $p < .001$,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탐색 촉진을 조력하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개인적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라 맥락적 지지, 대학생의 성실성·개방성 성격요인이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를 통하여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서양 문화권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맥락적 변인으로 부모의 진로지지를 설정하였다(김태환, 2013; 이득연, 홍경자, 2004; Leal-Muniz & Constantine, 2005). 수도권 및 충청권 9개 대학의 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고 상담 및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정대로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서 부모 진로지지, 대학생의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

기대는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및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진로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이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준거변인인 목표는 외적인 강화가 없을 때조차 오랜 기간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동기의 중심개념이므로 지속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개방성과 성실성 성격요인, 부모의 진로지지, 자신의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 진로탐색이 더 나은 진로결정에 유의할 것이라는 기대 등에 대한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강점을 격려하고 약점을 상담의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은 내담자 자기이해와 효능감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맥락적 변인인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의 경쟁모형이 최종 구조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부모의 일반적 지지나 애착 등 부모 관련 변인이 자율성의 획득과 심리적 독립이 중요한 대학생들에게 있어 효능감, 정체감, 자기성장 주도성 등을 매개로 진로행동이나 정체감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김가희, 2015; 김지근, 이기학, 2011; 민지애, 유금란, 2015; 이현주, 2010). 즉, 대학생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결정효능감과 결정결과기대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로문제에 대한 갈등, 부모의 조언 혹은 지지 보다는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태도와 공감적 자세가 자녀의 진로탐색에 대한 의욕과 자기 확신에 도움이 된다. 숙달경험이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임을 고려한다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 다양한 탐색과 결정경험에 자녀가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탐색과 결정능력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맥락적 지지변인의 지지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지지와 다르게 목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양난미, 2006; 이정애, 2009; 정미애, 조남근, 2012; Lent et al., 2016)를 상담 장면에서 고려한다면, 상담자 혹은 친구, 교수 및 다른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 역시 진로탐색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은 결정효능감을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성실성은 결정효능감을 통하여 목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방성은 결정효능감을 통한 직·간접효과 모두가 확인되었다. 진로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가장 새로운 모형으로 성실성·개방성 성격요인이 진로탐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지와 성실성, 목표 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 검증 연구에서 성실성은 미국 젊은이의 성역할 다중관리 목표(Roche, Daskalova, & Brown, 2016), 구직자의 구직 목표(Lim et al., 2016), 대학생의 진로탐색 목표(Lent et al., 2016)에 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성실성이 가장 먼저 연구된 것은 성실성의 끈기, 계획성 등이 진로 자기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성격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서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성실성과 개방성을 모두 포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실성은 결정효능감을 통하여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더 성실한 성격특성을 지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숙달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능감의 강화를 통하여 진로탐색과정에서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 촉진의 결정적 요소(Brown et al., 2003)로 알려진 계획세우기, 직

업정보탐색 등의 쓰기 연습은 성실성과 관련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만 효능감 강화에 기여할 때 진로탐색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표설정과 수행에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성실성이 아니라, 개방성 성격요인이 결정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뿐 아니라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방성의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의 유추가 가능한데 먼저, 개방성 성격요인이 지적 흥미, 호기심 등과 관련되어 있어 결정효능감 향상의 기회와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목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떠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결정효능감 및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개방성이 지닌 또 다른 특성인 유연성이 변화가 많은 불확실성의 시대의 적용에 이점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성이 우리나라 직장인의 변화물입과 적응수행(손향신, 유태용, 201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모두 예측했다는 연구(김보영 외, 2016) 등이 이와 유사한 결과들로 개방성은 외향성과 더불어 자기 성장과 관련된 성격 요인으로 분류된다(DeYoung, 2006; Digman, 1997).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진로탐색 촉진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관심영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시키고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관점을 제안하는 등 개방성과 관계된 활동이 결정효능감과 목표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탐색에 성격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성실성 혹은 개방성이 낮은 내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내담자들보다 진로탐색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상담의 기간과 목표를 설계할 수 있다. 성실성이 낮은 내담자들의 경우, 결정효능감의 향상에 초점을 맞출 때, 진로탐색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방성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지적 흥미나 호기심을 편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변화가 큰 현 시기에 지니는 긍정적인 특성을 상기시키기, 관심분야에 대한 폭과 깊이의 조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들을 내담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진로탐색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결정효능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표와 부모 진로지지, 성실성·개방성을 매개하는 요인은 결정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을 통하여 결정에 도달하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더 높이가질수록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결정효능감의 촉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효능감이란 과거와 미래의 행동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지적 기제이다. 즉, 과거의 학습경험이 단순 누적되어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회상되고 비중을 두어 통합되어 서로 다른 효능감 평가를 낳게 된다. 상담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자기 개념·효능감이 강화될 수 있다(Rossier, 2015). 즉 효능감을 변화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기, 개인 간 비교보다 개인 내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단점의 극복과 강점의 개발에 대한 인식 간의 균형감을 갖기 등을 통하여 효능감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다양한 탐색과 의사결정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중 어디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가의 근거는 어떠한지 등을 내담자와 함께 살펴보고 내담자의 결정효능감에 대한 지각의 재구조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학습된다면 내담자의 진로 자기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부모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자녀의 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결과기대는 결정효능감과 목표 간의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과정의 목표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결정결과기대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진로준비행동(이정애, 2009; 전미리, 김봉환, 2015a), 흥미(김민선, 2008; 김진관, 2014; 양난미, 2006; 이정애, 2009)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고양시키는 것이 진로탐색 동기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긍정적 결과기대를 높이는 활동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수도권 및 충청권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표집된 점, 인문사회상경계열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별 편차 등으로 인하여 해석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한 횡단 연구로서 행동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모형 가운데 진로탐색과정의 목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설정된 성실성과 개방성 성격요인만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진로탐색에 대한 목표가 행동 및 진로결정, 결정이후의 성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다른 성격요인과 이들 진로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지 못 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질, 사회경제적 자원 접근성, 성적 지향 등 배경 맥락 변인이 제외되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배경맥락 변인은 서로 다른 학습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효능감과 결과기대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이를 포함하여 검토할 때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유제민 (2010). 진로상담: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가희 (2015).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2008). 공과대학 학생들의 공학흥미와 사회인지적 요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승훈, 이상민 (2016). 계획된 우연이론에 기반한 성격 5 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 리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 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 모의 자율성 지지 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 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 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진관 (2014).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의 인 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 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한국심 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미옥. (2010). 성취목표지향과 성격, 자기효 능감 및 내-외적 동기의 관계. 교육학연구, 48(2), 21-44.
-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부 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71-990.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선헤연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진로교육연 구, 21(3), 49-67.
- 선헤연, 김계현 (2007). 진로상담: 청소년 진로 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성하은 (2014). 진로결정자기자기 효능감과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향신, 유태용 (2011). 개방성, 외향성, 핵심자 기평가가 변화몰입과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2), 281-306.
- 송보라, 이지원, 최혜승, 허준경, 이기학 (2015). 성인의 전생애적 진로만족 연구: 생애주 기별 사회인지진로변인과 삶의 만족에 대 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5(5), 1791-1810.
- 송지은, 이정운 (2014).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 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5(3), 1183-1198.
- 양난미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 선택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 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 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19(3), 457-485.
-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

-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유현실 (2014). 대학 진로교과목 수강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성격 및 성별의 중단적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89-111.
-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 이미진 (2012).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메타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상희, 최춘희, 신상수 (2011). 재취업구직자의 성격 5요인이 구직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지원집단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간이해*, 32(1), 85-102.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애 (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 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2), 41-59.
- 전미리, 김봉환 (2015a).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45-461.
- 전미리, 김봉환 (2015b).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 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정미예, 조남근 (2012).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 예측 모형. *상담학연구*, 13(2), 401-415.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rown, S. D., & Hirschi, A. (2013).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2nd ed., pp. 299-328). New York, NY: Wiley.
- Brown, S. D., Krane, N. E. R., Brecheisen, J., Castelino, P., Budisin, I., Miller, M., & Edens, L. (2003). Critical ingredients of career choice interventions: More analyses and new hypothe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3), 411-428.
- Bullock-Yowell, E., Andrews, L., & Buzzetta, M. E. (2011). Explaini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Personality, cognitions, and

- cultural mistrus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5), 400-411
- Cheung, M. W. (2007). Comparison of approaches to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227-24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Young, C. G. (2006).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in a multi-informan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6), 1138-1151.
- Digman, J. M. (1997).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246-1256.
- Gati, I. (2013). Adva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M. L. Savickas & P. J. Hartung(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pp. 183-215). New York: Routledge.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Jin, L., Watkins, D., & Yuen, M. (2009). Personal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ommitment to the career choices process among Chinese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1), 47-52.
- Kelloway, E. K.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Sage.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Leal-Muniz, V., & Constantine, M. G. (2005). Predictors of the career commitment process in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204-215.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12.
-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 Lent, R. W., & Fouad, N. A. (2011). The self as agent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P. J. Hartung & L. M. Subich (Eds., pp. 71-87), *Developing self in work and career: Concepts, cases, and contexts*. Washington, D. C.: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m, R. H., Lent, R. W., & Penn, L. T. (2016). Prediction of job search intentions and behaviors: Test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5), 594-60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 McCrae, R. R., & Costa Jr, P. T. (2008). A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178-203.
- Reed, M. B., Brunch, M. A., & Haase, R. F.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 Roche, M. K., Daskalova, P., & Brown, S. D. (2017). Anticipated multiple role management in emerging adults: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1), 121-134.
- Rossier, J. (2015). Personality assessment and career intervention. In P. J. Hartung, M. L. Savickas, & W. B. Walsh(Ed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volume 1 foundations*(1st ed., pp. 327-350).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vickas, M. L. (2011). New questions for vocational psychology: Premises, paradigms, and practic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3), 251-25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원 고 접 수 일 : 2017. 11.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23
계 재 결 정 일 : 2018. 03. 2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College student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Social Cognitiv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Mee-Ri Jeon

Chung-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Bong-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based on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from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o a brief decisional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behavior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the big five traits of conscientiousness in college students, openness, and goals.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ata from 448 current students attending four-year metropolitan universities wer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parental career support, conscientiousness, openness, brief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behavior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exploratory intentions of Korean students. It is suggested that parental career support and conscientiousness have indirect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goals. Openness influences goal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rief decisional self-efficacy serves as a mediating variable.

Key words : career self-management, parental career support, personality, brief decisional self-efficacy, goals